

## 중증장애인도 5급 공무원으로 일한다

- 행안부,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최초로 5급 합격자 선발 -

1. 행정안전부는 9월 15일 고용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일괄 특별채용시험의 금년 합격자 14명의 명단을 확정·발표하였다. 합격자 중 지체장애(상지) 3급인 지○○(남, 31세)씨는 중증장애인 일괄 특별채용시험 도입 이후 최초로 5급 합격자로 선발되었다. 지씨는 컴퓨터공학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이번 시험에 응시하여 5급 직위에 상당하는 직무수행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앞으로 특허청 심사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2. 금년 중증장애인 일괄 특별채용시험 합격자는 13개 부처 14개 직위별로 정한 응시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으로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일 19개 부처 23개 직위에 대한 시험을 공고하였고, 349명이 응시하여 이들에 대한 1차 서류심사와 검증과정에서 17개 직위별로 1~6명씩 총 73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하였으며,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해 13개 부처 14개 직위별로 각 1명씩 총 14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합격자는 직급별로 5급 1명, 7급 3명, 9급 8명, 연구사 1명, 기능직10급 1명이며, 이중 9명은 사회복지관, 고용지원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중소기업체(기산이앤씨, 롯데카드)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다.